

### 부호장공파 운영위원 정기총회 앞두고 회의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헌종) 운영위원 회의가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아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시내 노하동 농경지 건, 사무실에 인터넷 설치 및 조리대 교체 건, 운영위원 교체 및 제례위원 추가 선정 등을 토의하기 위해서다.



욱 현 사무국장이 오는 3월경 권용덕 회원에게 사무국장을 인계하기로 했으며 운영위원 2명과 제례위원 2명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5년도 결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것을 총회 때 상정하기로 했다.

권태욱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권헌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도 차가운데 많은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고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부호장공파 제 109회 정기총회를 오는 2월 7일(음력 12월 20일, 定日) 안동권씨회관에서 개최하고 점심은 회관 1층 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떡, 과일을 준비하며 기념품은 5만원 상당의 꽃가 1상씩 선물하기로 협의했다. 시내 노하동에 있는 농은 종전 경작자가 경작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하고 노후한 조리대는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권태

2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안동시 서동문로38 '농민후계자식당'으로 이동, 불고기와 돼지고기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헌종 회장을 비롯하여 권중대, 권오엽 부회장, 권정수, 권오명 감사, 권오관, 권중용, 권태중, 권순지, 권태봉, 권정유 운영위원 6명, 권태욱 사무국장, 권용덕 차기 사무국장 등 13명이다. 권영건 보도부장

### 권혁중 총주미래포럼 대표 출판기념회 개최



권혁중 총주미래포럼 대표가 1월 16일 오후 2시, 권오협 문충공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총주를, 미래를 II'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총주 출생인 권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문화·체육·

관광 정책을 이끌어온 행정 전문가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총괄했다. 권 대표는 공직 재직 시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총주가 문화·스포츠·관광·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을 책에 담아냈다. 권오협 문충공 회장

### 권혁우 대표 출판기념회 개최



권혁우 대표가 1월 17일(토)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백혜련, 김영진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삶의 궤적을 짚어 달라는 책, '큰 세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세 아이의 아버로서 꿈꾸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숨김없이 적었다. 왜 '기본사회'를 말하는지, 왜 수원이 '기본이 강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그 해답이다. 현재 수원미래시민연대 공동대표, 수원특례시 하키편회 회장, 기본사회 수원본부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



하고 있다.

권환완 편집국장

### 동정



▲ 권순인·이구범 부부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인정받아 국민추천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부부는 하남시 자원봉사자로 1999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학습 도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이 돼 왔으며 2009년에는 관련 단체를 창단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의 맹학교에 점자 변환 교재를 만들어 보내는 활동을 시작했다. 권순인씨 손을 거쳐 탄생한 점자 도서와 전자도서는 시각장애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지식의 통로 역할을 했다.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봉사시간은 무려 2만6588시간이다.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 권영문 신임 경북 청송군 부군수가 지난 2일 취임했다. 권 부군수는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경상북도에서 30여년간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 민원·복지·정책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부군수는 안동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력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 근무, 2023년 서기관 승진, 상주시 행정복지국장,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 등을 역임했다.



▲ 권혁재 전 시설사업국장이 19일 제66대 인천지방조달청장에 취임했다. 권 청장은 199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조달청 규제개혁담당관, 정보기술계약과장, 부산지방조달청장, 구매사업국장, 시설사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조달 행정 전문가다. 소통·공감 능력이 뛰어나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리더로 평가 받고 있다.



▲ 권기범 동국계약 회장이 한국계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권 회장은 1989년 연세대 사회복식학과 졸업 후 2012년 뉴욕대(NYU)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동국계약 창업주 고(故) 권동일 회장의 장남으로 1994년 기획실장으로 동국계약에 입사한 후 2002년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05년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에 취임했다. 권 회장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제약바이오협회 부이사장 겸 바이오의약품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부이사장이다.



▲ 권영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2025년 12월 31일 통상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배터리 등 주요 수출 산업을 대상으로 통상정책과 무역 규제, 수출통제, 경제제재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자문을 제공해 왔다. 각국의 산업정책과 이를 둘러싼 보조금 규범에 대해서도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 또한 WTO 협정과 FTA는 물론 해양폐기물 관련 협정과 OECD 협정 등 국가 간 협정부터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한 EU 역외보조금 규정(FSR)까지 심층 분석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통상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과 기업,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 권영호 수석부회장이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민간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재단의 취지에 공감하여 이루어졌다. 권영호 수석부회장은 1946년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전리 신기마을에서 태어나 생비량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으로 이주했다. 이후 연합철강 근무를 거쳐 대한철강을 창립하며, 50여년간 오직 철강산업 한 길을 걸어 왔다. 얼마전 회고록 '도전과 열정 철강 인생 50년'을 출간한 바 있다.

###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31회 1월 격월 회의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영건) 제31차 1월 격월 회의가 1월 23일 오후 6시 안동시 당북길 22-20에 위치한 '대왕민물장어식당'에서 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목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은 회의 때 참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기수 별장공파회장은 "안동권씨회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작년 4월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번지는 바람에 안동시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모금운동이 주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파종회는 물론 안동시내 독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억 원이 소요된다.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권기호, 권주연 등 3명의 고문을 비롯하여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회장, 권영준 동정공파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준근 시중공파회장, 권영태,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 2명,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11명이며 권오준 전 부호장공파회장은 개인 불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순복 전 정조공파회장은 이날 친목회에 가입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친목회는 홀수 달 넷째 주 금요일을 정일(定日)로 정하고 격월로 모이며 회원은 12명이다.

이 자리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회장이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6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권기원 사무국장을 유임시켰다.

이날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어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 시조 태사공 영정 봉안을 위한 의견 수렴

### 친애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우리 후손은 1,000여 년이 흘렀지만 시조님의 묘소 앞에서나마 시조님과 마주하면서 시조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그리워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시조 태사공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시조 묘소 아래 명당에 영정각(影幀閣)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학계의 전문가와 국가표준영정 제작의 권위자이신 화백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100만 후손들이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마음을 다하여 시조님의 영정을 영정각(影幀閣)에 봉안하여 후손 대대로 모시고자 하오니 맥내에 글, 그림 등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가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등이 있으시다면 서슴치 마시고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손 여러분의 따뜻한 숭조(崇祖)의 마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종회 사무처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 시조 영정 제작 및 규격

- 담당 화백 : 권오창 화백(동강궁중회화연구소)
- 규 격 : 가로 107m, 세로 180cm

### ♣ 시조 영정 봉안 의견 수렴

- 복 식 : 문신복, 무신복, 평상복 등 \*모습 : 입상, 좌상 등 \*연령 : 장년, 노년 등

## 안동권씨 대종회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 자문위원회